# 21세기 新성장 37개품목 선정

## 럭키금성經濟硏, HDTV등 정보화선도

21세기를 이끌어 갈 유망신산업은 HD(고화질)TV 및 바이오의약 광통신 이동체통신 대체에너지분야 등이 될 것같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21세기를 여는 新성장산업」이란 보고서에서 미래산업은 첨단화 정보화 서비스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하고 관련유망품목 37개를 선정했다.

이 연구소는 소비패턴이 고급화 개성화 편리성의 추구등으로 바뀌어 있어 이들 산업의 발전을앞당길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측면에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 기술자체도 기존의 자연과학중심 하드웨어분야에서 인간과학중심의 소프트웨어분야로 옮겨가 산업의 첨단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컴퓨터의 응용범위는 더욱 확대돼 통신기술과 접합된 정보화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용별로는 HDTV 전자의료기기 퍼지이론응용기기센서 로보트 물류기기 형상기업합금 초전도체 파인세라믹스 고분자분리막 등 성장품목과 산업이 기업발전을 첨단쪽으로 이끌어 갈 전망이다.

연구소측은 또 환경보전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체에너지 공해방지장치 등의 환경산업이 큰시장을 형성할 것을 내다보고 CATV(종합유선방송)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성장유망 품목이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 소프트웨어硏 설립

### 韓國通信, SW기술구축

韓國通信(사장 李海旭)은 국내 소프트웨어기술자립의 조기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소(소장 姜玟鎬)를 설립, 7월22일 서울중앙전화국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통신이 선로기술연구소에 이어 두번째로 설립한 자체 전문연구소인 소프트웨어연구소는 ▲SW 기반기술 ▲정보통신 SW개발 및 표준화 ▲SW 생산자동화연구등을 중점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며 주로 개방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24명의 연구인력과 시스템연구부 응용연구1부 응용연구2부 기획관리부등 4개부서로 출범할 SW연구소는 오는 '95년까지 연구인력 5백명, 연간연구비 4백억원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한국통신은 이를 위해 1단계로 올해안에 연구개발장비를 도입, 설치하고 2단계('92~'94년)로는 대형연구과제의 본격추진을 통해 SW사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며 3단계인 '97년까지는 세계적인 첨단연구소로 발전시킨다는 장기계획도 세웠다.

## 4메가 FDD 國內 첫 개발

### 三星電子, 데이타처리 능력 倍加

三星電子(대표 姜晋求)는 국내 최초로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인 4MB FDD(플로피디스크드라이)를 개발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개발에 착수, 1년3개월여만에 개발에 성공한 35인치 FDD는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BA-페라이트도표형 매체를 이용해 기존의 수평기록방식이 아닌 수직기록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록밀도를 배가시킨 차세대용 첨단제품으로 日本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된것.

이제까지 사용돼온 FDD는 최대용량이 2MB였으나 작년에 日本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4MB FDD차세대제품으로 인정돼 올 6월부터는 IBM에서 IBM PS-2 전모델에 장착해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3.5인치 4MB FDD는 처리속도가 기존의 5백 KBPS의 2배인 1MBPS, 모터속도는 3백RPM등으로 기존의 1MB, 2MB등 하위기종 FDD 와도 완벽하게 호환을 유지할 수 있다.